

# “태권도 진흥시키는데 힘 모으자”

# ‘기성용 의혹’ 폭로자, 변호사 고소

오용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무주군·무주경찰·장수소방서 등 찾아 지역 발전 방안 논의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취임 인사를 위해 민중석 무주경찰서장과 황인홍 무주군수, 김장수 장수소방서장을 차례로 예방하고 지역 발전과 태권도 진흥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용환 이사장은 무주경찰서를 방문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 내에 큰 사건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며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과 도복 지원 등 일선 경찰관들의 무에 단련에 우리 재단이 함께 할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무주군청을 찾아 황인홍 군수를 만난 자리에서는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우리 재단과 무주군이 태권도를 진흥시키는데 힘을 모으자”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태권도원에서는 무주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직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쌀 등의 무주 농특산물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 “태권도원 홍보와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라며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김장수 장수소방서장을 만난 오 이사장은 “소방 가족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히 생각한다”라며 “우리 재단과 태권도원이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무주군청을 찾아 지역 발전과 태권도 진흥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소방서와 소방관들에게 도움드릴 사항이 있는지 깊이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서장은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소방 안전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지속적인 교류 의사를 내비쳤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한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향후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무주군청과 경찰·소방 관계자, 관내 어르신·어린이 등을 태권도원으로 초청해 태권도와 태권도원을 알리는 등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입장문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주장

프로축구 FC서울의 주장 기성용(32)씨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기씨의 법률대리인을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28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기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B씨가 이날 기씨 측 송상엽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기씨의 법률대리인인 송 변호사가 지난 25일에 배포한 입장문은 대부분 명백한 허위사실들이며 일종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오늘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송 변호사는 기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로자와 관련,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수사를 받았다. 피의자는 언론을 통해 공익을 위해 성폭력 사

실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용기를 냈다면 실명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에 하루라도 빨리 출석해 진실을 밝히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폭로 등기를 공익적인 것으로 포장하고자 언론에 쓴 필요없다. 사과 한마디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며 “피의자는 막상 자신의 중학교 후배를 통해 기성용 선수에게 ‘오보라고 해주고 돈 받아야지’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기씨는 지난 3월22일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B씨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24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C선수가 기씨로 특정됐다. /뉴스사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는 26일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아태마스터스 대회에 중국 생활체육인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中 생활체육인 참여 확대 추진 협력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주 광주 중국 총영사관 찾아 방안 논의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위원장 송하진)는 26일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아태마스터스대회에 중국 생활체육인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전북도 우호교류지역인 중국 산둥성, 강소성, 상하이, 운남성의 체육단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 전민건강운동회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대중국 홍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장청강(張淸剛) 총영사와 이강오 조직위 사무총장은 “2023 전북 아시아태평

양 마스터스대회는 각 국가에서 참가대표단을 구성해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을 각자 개인들이 신청해 참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다”며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국가체육총국 각 지방 체육국, 체육단체 등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 임실군청 사격팀, 전국대회서 은빛 총성

황성은, 여 일반부 개인전 2위

임실군청 사격팀(감독 권민수)이 지난 19일~23일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21 한국살상사격연맹회장배 전국 사격대회에서 여자일반부 개인전 2위에 입상하며 은빛 총성을 울렸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약 1년 반 만에 개최된 공식 대회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식 생략 및 무관중으로 치러졌다.

전국 여자일반부 실업팀 중 10개 팀 전원이 참가하는 대회였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25m 화약권총, 10m 공기권총 종목에 참가했다.

황성은 선수(임실군청)는 41명이 참가한 25m 화약권총 종목에서 2019년 세계랭킹 1위 김민정 선수(KB국민은행)와 결승연장전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다.

2015년~2018년 및 2020년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선수다.



권민수 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감각을 기를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힘든 훈련을 견디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군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며, 올 한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전북체육회, 도내 21개 초·중·고 학교운동부에 훈련 장비 지급키로

전북도체육회가 도내 21개 초·중·고 학교운동부에 훈련 장비(용품)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8일 도체육회에 따르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학교운동부 지원사업비 2억3000만원을 도내 21개 학교 운동부에 지원한다.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은 과학적 훈련용기구(현대적 장비) 지원 등 훈련여건을 개선시켜 우수 학생선수를 육성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 운동부는 바이애슬론과 배드민턴·복싱·사격·씨름·스키·역도·체조·하키·핸드볼 등 올림픽 종목 또는 기초종목 비인기 종목이다.

이들 학교 운동부에는 체지방 측정기와 전신반응 측정기, 달리기 측정시스템 등 과학적 훈련기구를 비롯해 각종 훈련 용품이 지원된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훈련용품의 질적·양적 향상으로 훈련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 및 선수 자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